

안녕하세요?

졸업생을 대표하여 오늘 답사를 하게 된 고급 2 B 반 루나키입니다

먼저 졸업식을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 참석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3 급부터 한양대 국제 교육원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식에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막상 제가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서 아주 신기합니다.

제 유학 생활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한양대 국제 교육원에 입학한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지만 그것과 함께 유학을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유학을 오길 잘했다고 느꼈던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배움이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사고방식도 무엇 하나 같은 부분이 없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어떤 어려운 문법이나 단어보다 사람으로서 배워야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급 수업이 됨에 따라 자신의 나라와 관련지어 의견을 말하는 수업이 많아 어렵긴 했지만 다른 나라 친구들의 생각과 그 나라의 현황을 알 수 있어서 재미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의 소통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양대 국제 교육원에 입학하여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모두 다 좋은 분이셔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며 많은 친구들이 각자 목표를 이루어, 앞으로 사회에서 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년 11 월 17 일  
졸업생 대표 루나키 드림